

<매일매일 봄날이면 좋겠어>

하나를 내주면 다른 하나를 얻는 봄,
도전과 실패를 회복과 행복으로 바꾼
다린이의 성장 이야기



천은진 지음
4세 이상, 초등 저학년



꼬마 다람쥐 다린이는 엄마의 말을 품고
땅속 온실에서 꽃씨를 정성껏 돌봐요.
드디어 봄이 오고,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만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새들과의 만남으로 갈등을 겪게 돼요.
“꽃밭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어!”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성장하는 다린이의
봄 이야기를 만나 보아요.

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 >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
자연탐구 > 자연현상 알아보기

교과연계

자연 2-1 그림책으로 만나는 자연
계절 2-2 계절이 속닥속닥

1. 표지를 자세히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미소 짓는 다린이와 머리 위 작은 새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말풍선에 대화를 적어 보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발견한 봄은 무엇인가요?

보고, 듣고, 맡고, 느낀 봄을 써 보세요!

• 봤어요

•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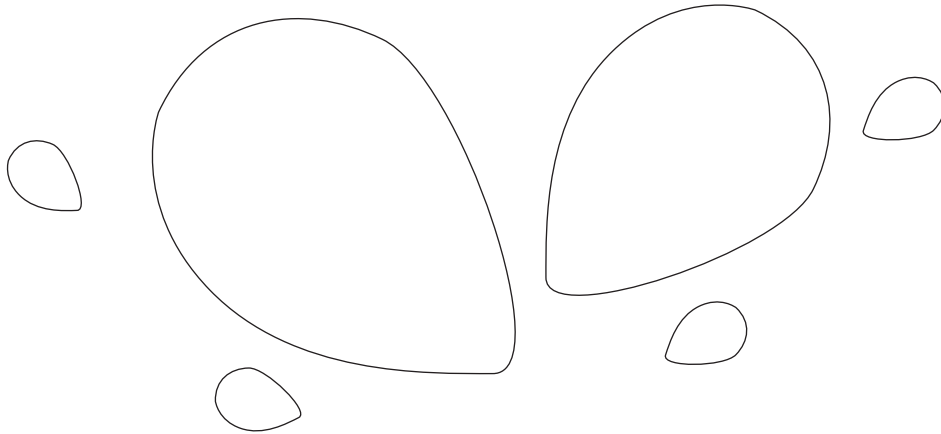
• 느꼈어요

책 속에서 엄마 다람쥐가 말해요.

“겉은 단단해 보여도 씨 안에는 봄이 숨어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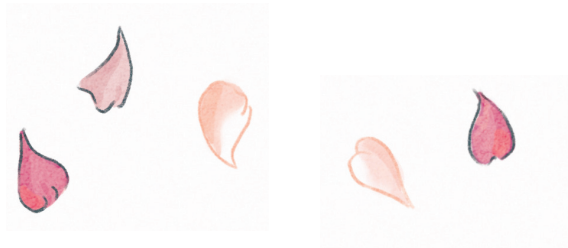
아래 씨앗 안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봄의 색깔로 예쁘게 색칠하고, 씨앗이 꽃이 피면 어떤 소리가 날지 적어 보세요!

- 꽃씨를 봄의 색깔로 칠해 보아요.



- 꽃이 피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예: 팡팡! 툭툭! 사르르~)



아래 그림을 보고 일어난 순서대로 () 안에 번호를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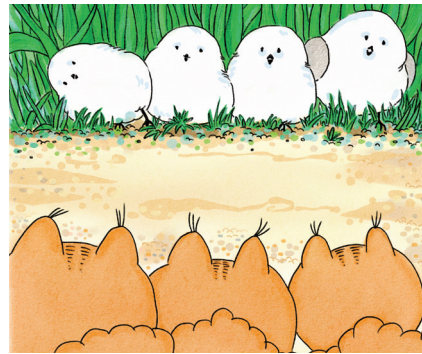
(1) 꽃씨 팡팡 뿌리기
()



(2) 꽃밭 자리 찾아 땅 파기
()



(3) 온실에서 씨앗 돌보기
()



(4) 새들을 위해 꽃밭 나눠 주기
()

4-1-2-8 ④ 울릉 <묘원>

꽃밭을 줄인 뒤 다린이는 “왠지 마음은 가벼웠어”라고 했어요.

왜 마음이 가벼워졌을까요? 생각하는 것에 ○ 표시를 해 보세요!

- 나만 생각할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행복해서 ()
- 꽃씨를 더 이상 안 뿌려도 되어서 ()
- 새들이랑 친구가 되어서 ()

활동 ⑥ 다람쥐와 새의 대화를 완성해 봐요

독서중

- 다람쥐와 친구들:

“너희 알이 있는지 몰랐어.

아기 새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우리가 배려할게!”

- 새들의 대답:

활동 ⑦ 나의 힘이 되어 주는 사람

독서후

비바람에 꽃밭이 무너져도 다람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
이에요. 나에게도 힘이 되어 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과 고마운 점을 생각하고 아래
에 적어 보세요!

- 이름:

- 고마운 점:

- 이름:

- 고마운 점:

만약 마법의 꽃씨가 있다면 어떤 꽃밭을 만들고 싶나요?

개나리, 진달래, 앵초, 민들레, 금낭화, 은방울꽃처럼 예쁜 꽃들을 마음껏 그려 보세요!

여기에 꽃밭을 그려요!

활동 마무리

밖으로 나가 진짜 봄을 만나 보아요.

- 공원이나 화단에 나가 민들레, 벚꽃, 개나리, 진달래 같은 봄꽃을 찾아보아요.
- 눈을 감고 10초 동안 새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 등 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요.
- 땅 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흙, 나뭇잎을 손으로 만져 봐요.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느껴보고, 활동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요!

